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 돋보기
통일 한국,
잘 나가는 산업분야는?



통일을 여는 사람들
마지막 냉전의 현장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돼야



통일 Talk
통일을 위한 평화의
카운트다운 심고 왔어요

포커스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지난 한 달만
큼 남북관계가 가파른 수직선을 그리
며 양극단을 오간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보기 >](#)



행복한 동행
'사춘기의 강'을 함께 건너는
여깨동무 멘토링



골든벨, 뒷 이야기
고교시절 '추억이 방울방울'
즐거웠던 통일골든벨!



Today 남북
북한에 부는 외국어 열풍,
세계와 소통 가능성 넓혀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
북한서 온 영인이의
파란만장 알바 적응기'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제16차 남북관계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Nuac News
제17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



느낌 있는 여행
어제의 상처가 아픈 이유,
전북 군산



통일 웹툰
최고의 록음악 축제,
통일한국의 '독도 록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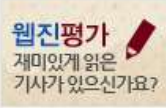
통일 레시피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소고기 맛, 순안 불고기



이벤트 당선작
북한친구들아
같이 휴가가자 당선작



이벤트
1. 보름달에게 통일소원 말해봐
2. 추석맞이 경검다리 퀴즈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

성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지난 한 달만큼 남북관계가 가파른 수직선을 그리며 양극단을 오간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이 일순간에 한반도 긴장지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북한의 최후통첩 시한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이뤄진 남북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적 변화를 예고하는 극적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북한은 박근혜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제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통일준비 작업에 나설 때만 해도 이를 흡수통일과 체제통일 시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고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성 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숙청 시리지는 북한의 대외전략 담당 부서와 각급 기관들간의 충성경쟁을 야기했고 생존경쟁의 양상을 띤 이러한 움직임은 대남 비난의 빈도와 강도를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DMZ에서 벌어졌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된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에 다름 아니었다. 공포심을 자극하는 협박과 공갈 수준의 비난이나 예상을 벗어나는 국지적 도발로 인위적 위기국면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협상 국면에서 양보와 타협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식 대남전략의 패턴이었기 때문이다. 가용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 한계에 도달한 국가들 중 일부가 체제나 정권의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이후 나타난 공세적 압박전략은 도발과 타협,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론과 부딪히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무박 4일 43시간의 고위급 접촉 끝에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한 8·25 합의과정을 보면 북한의 선제 도발을 통한 위기조성 전략이 의도대로 먹혀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번 합의문에서 북한을 주체로 하여 유감 표명을 받아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뢰 도발을 일으켰다는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지 못했고 분명한 재발 방지 조항이 담기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유사 사례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와 견주어 볼 때 이번 합의는 '최선에 가까운 차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8·25 합의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략 60% 이상의 국민들이 '남북합의가 잘 됐다'고 응답한 것도 이러한 평가를 반영한다. 잘못된 합의라고 한 응답자들은 20%를 밑돌았다.

합의문 내용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합의 과정이었다.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에서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의했고 우리 측이 동의해 성사된 사실상의 최고위급 접촉에서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유감 표명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결국 최고지도자의 지침을 받아 진행되는 고위급 접촉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유감을 표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문 내용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합의 과정이었다. 일촉즉발의 긴장 국면에서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의했고 우리 측이 동의해 성사된 사실상의 최고위급 접촉에서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유감 표명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자.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해 김일성이 평양을 극비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직접 사과한 것은 사건 발생 4년이 흐른 후였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해 북한은 4일 만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인민군 총사령관 명의의 유감표명 메시지를 유엔군사령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는 사건 발생 3개월 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였고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유감 표명이 이뤄졌지만 이는 남북장관급 회담 대표단장 명의로 불과했다. 결국 최고지도자의 지침을 받아 진행되는 고위급 접촉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유감을 표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3군 사령부를 방문,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 및 방법론에 비추어 관찰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그리고 대북역지와 협상의 균형이라는 요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방법론적 핵심을 이룬다.

특히 8-25 합의 직후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합의를 평가하면서 각각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아이콘인 신뢰와 불신 해소를 언급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합의를 박근혜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 및 방법론에 비추어 관찰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그리고 대북역지와 협상의 균형이라는 요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방법론적 핵심을 이룬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균형전략은 DMZ 목함지뢰 도발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지 5일만에 발표된 광복 70주년 기념사는 물론 4일간의 남북간 합의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온다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북한의 도발로 2명의 젊은이들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한 여론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8-25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1차적 협상목표를 뛰어넘어 당국자 회담 개최와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유연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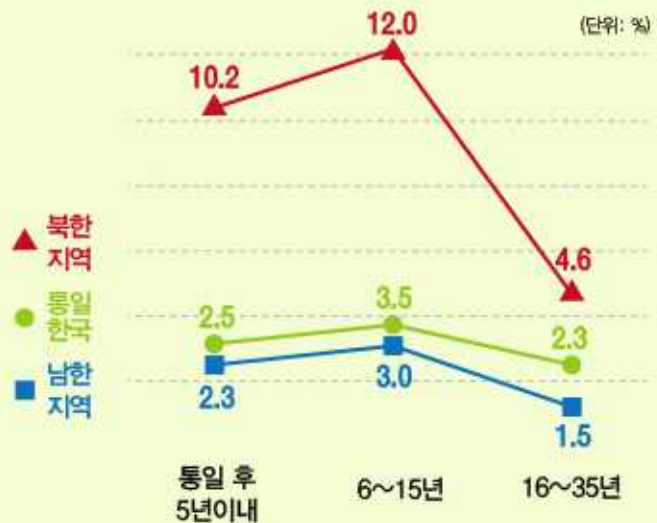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8-25 합의는 박근혜정부 후반기 통일-대북정책의 추진방향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임기 전반 내내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준비 담론을 확산하는 데에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에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준비 작업을 실질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준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3대 목표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디딤돌이 비로소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고 정상 궤도에 올라 남북관계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루면 '대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산업분야가 유망할 지 궁금하시죠? 통일시대를 대비해 미리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건설과 전력·에너지, 유·무선통신, 자원개발, 교통·물류, 기계, 소재, 환경·바이오, 가전, 자동차, 항공우주, 관광 등이 통일 한국의 유망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① 건설_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② 전력·에너지_산업용 수요 급증에 대응



(단위: 억 kWh)



[통일 한국의 전력량]

③ 자원개발_동북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 ()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지역 조달시 기용연한

※ 보유 규모는 2011년 수입단가 기준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보유규모 및 기용연한]

④ 자동차_유효 수요 지속 성장



[통일 이후 자동차 산업 성장 전망]

⑤ 항공우주_군수시설 민간 활용 확대



[통일 이후 우주산업 성장 전망]

⑥ 관광_외국인 관광객 2억명 시대 도래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및 12대 유망 산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마지막 냉전의 현장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돼야

DMZ 종주한 녹색연합 서재철

DMZ 주변 가칠봉을 지나 서희령으로 이어지는 내리막 길. 철책선 옆 언덕과 호수 주변에 화려한 분홍빛 야생화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며 만개해 있다. 법정 멸종위기식물이자 한반도에서만 서식한다는 솔나리다. 주먹만 한 꽃봉오리를 땅 아래로 향한 채 꽃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녹슨 탄피와 탄클립들.

아직도 서희령 일대엔 전쟁의 흔적들이 녹슨 채로 발견된다. 민간이 출입할 수 없는 DMZ 군사분계선을 60일간 종주한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을 만나 DMZ 풍경과 문화적 생태적 유산으로서 DMZ가 지닌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까지 DMZ 60일간 종주

DMZ 종주를 마친 서재철 전문위원은 요즘 60~70년대 군사시설들이 위치한 DMZ 내 재해위험 조사와 복구복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한반도 기후변화로 폭우가 내리면 토석류가 쏟아져 내려와 시설들이 유실될 수 있어서다. 쉽게 말해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일들이 DMZ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흔히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많이 혼동해서 쓰인다.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자면 1953년 '한국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로 군사분계선이 그려졌고,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각각 2km씩 둘러나면서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설정됐는데 그 폭 4km 구간이 비무장지대이다. 반면 민통선은 비무장지대가 형성된 다음 해인 1954년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위해 만들어진 구간으로 철책선 남쪽에서 약 5~20km가량에 이르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까지 포함시켜 흔히 '비무장지대 일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 서재철 전문위원



근대화 이전 한반도 자연 생태계가 눈앞에 펼쳐져

DMZ 남방한계선 안쪽. 그곳에서 서 위원은 100년 전 한반도 자연의 모습, 근대화 이전 농경사회의 우리 모습을 봤다고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판부동 습지. 판부동 습지부터 사미천 비무장지대 안에는 전쟁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집터나 농사를 짓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논이 다시 습지로 복원되고 있었다.

“일반 논두렁 밭두렁도 농약만 없으면 온갖 작은 생명들의 물 좋은 터전인데, 아예 농사를 짓지 않고 60~70년 넘게 그대로 둔 거잖아요. 그야말로 자연의 지상낙원으로 변모해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농지의 흔적이 이렇게 곳곳에 스며든 채 습지로 형성된 곳이 또 있을까요? 버려진 논두렁마다 작은 생명들이 들끓고 있고, 겨울이면 각종 철새가 몰려듭니다. 텃새와 어류, 양서·파충류와 곤충도 많고요.”



▲ 고라니



▲ 솔나리(법정보호종)



▲ 산양

DMZ를 지키는 군인들은 이곳 습지에서 매일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듯 고라니와 마주한다. 고라니는 만주 일부와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국제적 기준과 가치로 보면 반달가슴곰과 견줄 정도라고. 백암산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사향노루가 병사들의 친구노릇을 하고 있다. 사향노루는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종적을 감춘 동물로 가곡 '비목'의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가사에 나오는 '궁노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서회령에서는 법정보호종인 솔나리의 최대 근락지를 발견했고 북한강 21사단 작전구역에는 한국특산종인 금강초롱이 지천으로 널려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 '고지전'이라 불리던 치열한 전쟁의 현장. 피의 흔적 역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서 위원은 “야생화 무더기를 헤치고 땅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뼈나 전투복만 없을 뿐이지 쇠뿔이 같은 게 여기저기 널려있다”며 안타까워했다.



▲ 사미천 습지

비무장지대와 인근 민통선 지역은 멸종 위기 동식물 1급인 두루미 중 800마리가 겨울을 나고 어름치와 묵납자루 등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반달곰과 산양, 수달, 담비, 삿 등 희귀 포유동물들이 살고 있어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의 안정적인 서식지가 돼 주고 있다.

“직접 관찰한 결과 확실히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자연 생태계의 황축이었어요. 인간의 간섭이 적기 때문이죠. 비무장지대 경계부대에는 ‘동물을 잡거나 해치면 부대에 사고가 난다’는 미신이 있어 야생동물들을 함부로 포획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군인을 만나도 피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죠.”



분단의 현장 DMZ에서 본 남북한 청년 군인들

이처럼 경이로운 자연을 가진 DMZ지만 서 위원은 이곳이 전쟁과 대결의 최일선이었고 아직도 분단의 현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다만 1960년대 후반 무렵, 거의 사흘이 멀다 하고 전쟁 일보직전의 교전이 지속됐던데 반해 현재 DMZ 내 남북한 군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서 위원은 종주하는 동안 각 부대 일반 사병들의 ‘속살’,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생얼’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했다.

“애들 같기도 하고 풋풋하기도 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요즘 군인들은 군대 물품 대신 자기 취향의 속옷이나 화장품을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요. 웬만한 부대의 구내식당마다 밥도 괜찮게 나오는데 밥 먹기 싫다며 컵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거 보고 놀랐어요. 물론 생활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일 뿐 군 기강 만큼은 확실하지요.”



▲ 비밀의 철책선에서 작업하는 병사들

반면 부대에서 고성능망원경으로 넘겨다본 북한 군인들은 줄거나 발을 일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북한처럼 10년간 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군기가 있겠어요. 그냥 생활이죠.”

북한 병사들의 지치고 곤궁한 표정만큼이나 서 위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북쪽 지역의 험벗고 황폐한 산이었다. 비무장지대 북방 한계선 이북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풀과 흙뿐이었다.

“민둥산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산림만 봐도 북한이 어렵다는 게 확연히 느껴져서 더이상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지역에 산림복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죠. 임진강의 수해도 산림의 황폐화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나서서 산림기술을 지원하고 묘목과 종자를 보내 복구에 나서야 해요.”

DMZ, 냉전의 유산으로 보존돼야

현재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은 전 세계 국경 중 가장 삼엄하고 비무장지대 바로 뒤에 배치된 군사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서재철 위원은 DMZ를 종주하면서 이 비극의 공간에 대해 발상을 전환하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세기 인류를 가장 크게 짓눌렀던 게 냉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냉전의 유적이 나 유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쟁력은 차이로부터 오는 법. 실제로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 1순위가 DMZ라고.



▲ DMZ종주중인 DMZ 재해위험 실태조사 단원들

“독일은 통일의 기쁨에 젖어 1,400km에 가까운 장벽과 철조망을 다 걷어버렸어요. 3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요. 한반도의 DMZ는 이제 냉전을 상징하는 마지막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재철 전문위원은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촌에서 ‘길’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곳은 스페인의 산티아고와 일본의 쿠마노고도(熊野古道) 두 곳인데, DMZ는 비무장지대는 생태계 보고인 동시에 냉전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탐방로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했다. 이런 서위원의 말처럼 분단의 비극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DMZ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아픔의 역사로 머물지 않고 평화의 메시지를 지구촌에 던져줄 수 있는 공간으로 승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글. 기자희 / 사진제공. 서재철 전문위원〉



“통일을 위한 평화의 카운트다운 만들고 왔어요”

DMZ 해마루촌 봉사활동 참가한 동서대 디자인과 학생들

일반 사람들은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내 작은 마을 해마루촌. 6년 전부터 이곳에 하나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평화를 상징하는 고라니가 몇 마리 씩 늘어나더니 마을 아이들이 뛰노는 일상을 담은 벽화와 예쁜 벤치가 생겼다. 그리고 올해는 그 ‘완결판’으로 통일을 위한 평화의 카운트다운 조형물이 세워졌다. 2015 ‘DMZ 해마루촌 디자인예술마을 만들기’를 위한 동서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이야기해 들어보자.



통일토크 참가자

최정균

‘DMZ 해마루촌 디자인예술마을 만들기’ 봉사활동의 학생리더.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뒤 창업해 자기만의 디자인 세계를 펼쳐보고 싶다.



최호진

디자인은 상품을 돋보이게 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실용적인 디자인, 서비스로서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미래 광고기획가.



정정호

해마루촌 인근 부대인 '파주1사단' 출신으로 그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며 엄살이지만 봉사활동만큼은 현역 군인보다 더 씩씩하게 해냄.



김유라



라인일러스트나 캘리, 원화 등 디자이너로서의 자기 개발도 열심히,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봉사와 노력봉사도 열심히.



정진욱

2년 째 봉사활동에 참여한 등직한 일꾼. 광고도 잘하고 브랜딩도 잘한다는 능력자. 마흔 살이 되기 전 회사를 창업하는 게 꿈.



조성범



'딴 짓' 하는 게 좋아 만들었다는 스마트폰 앱 게임이 '구글 신규 유료 8위'를 기록했다는 다재다능한 청년. 디자인이란 인류를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그렇게 힘들진 몰랐죠, 해놓고 보니 뿌듯해요

정균 ▶ 저학년 때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힘든 작업이라는 걸 알고 가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저는 54321이라는 숫자의 철판조형물을 땅에 그냥 올리는 줄 알았는데 밑 작업부터 하시더라고요. 땅을 파서 시멘트를 붓고 굳히는 작업이 가장 힘들긴 했지만 만들어놓고 보니 조형예술 마을이라는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진욱 ▶ 작년에 갔을 때는 평화의 상징 고라니로 공원을 꾸몄었는데 올해는 54321 카운트다운 숫자조형물 설치했어요. 공원이 통일의 출발점 같아 뿌듯했고, 1년 만에 가봤는데 정겨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6년간의 봉사활동에 대미를 장식하는 카운트다운을 넣었으니 앞으로는 DMZ 내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활동을 펼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라 ▶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 DMZ 문화상품을 기획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해마루촌의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제가 만든 상품도 전해드릴 겸 따라갔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 거라곤 상상도 못 했죠. 한낮에 페인트칠 하고 전시상품 테이블을 만드느라 직접 망치질도 했어요.

정호 ▶ 민통선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디자인봉사활동이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사실 54321 카운트다운에 대한 기획을 들었을 때 '많은 디자인을 두고 왜?'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범 ▶ '봉사활동에 꼭 참가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DMZ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번 작업을 통해 디자인과 조형물이 만나면 강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걸 느꼈어요.

호진 ▶ 광복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런 활동을 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DMZ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군화를 뚫는 모기, 작열하는 태양도 막지 못한 봉사 열기

진욱 ▶ 작년에 비해 그래도 올해 남자 인원이 많아서 다행이었죠. 54321 카운트다운 조형물을 설치했더니 마을 주민들이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지는 곳인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싶은 공원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다시 와 보니 풀이 많이 자라있어서 손으로 직접 뜯고 조형물을 세웠는데 앞으론 풀이 미처 자랄 수 없게 많은 분들이 조형물을 보러 공원을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범 ▶ 전 이장님께서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고생하게 될 것 같다'며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특히 파주지역에선 말라리아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모기를 40방이나 물렸어요. 심지어 군화를 뚫고 무는 바람에 힘들었지만 완성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전 이장님과 현재 이장님 모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다 끝난 뒤 잔치도 열어주시니까 이 마을을 떠나기 싫단 생각도 들더라고요.



▲ 조형물 설치

호진 ▶ 사실 작업하는데 너무 날씨가 덥긴 했어요. 막 노동에 버금갈 정도로 삼질을 해댔는데 그래도 동생들이 열심히 하면 형들은 또 그 모습을 보고 힘내면서 곡괭이질, 삼질을 한 번씩 더 했던 것 같아요. 여학우들도 열심히 해줬는데 참 신기한 건 힘든 와중에도 다음 날 아침에 보면 다들 화장을 하고 나오더라고요(웃음).

유라 ▶ 6년째 공들여서 통일을 위한 예쁜 조형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외부인이 쉽게 와서 구경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에게 이런 의미 있는 공간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해야 평화통일을 위한 메시지가 더욱 널리 전파되지 않을까요?



▲ 완성된 고라니평화공원



6년 봉사활동의 결실, 통일의 에너지로 결집되길

성범 ▶ 저는 해군출신이라 DMZ는 처음 가봤거든요. 대성동 마을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마을 들어간 지 5일 만에 장보러 밖에 나왔는데 마치 휴가 나온 군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짧은 외출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웃음).

정균 ▶ 민통선 안에 들어왔을 땐 여느 시골농촌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물들이 사람구경을 별로 안 했는지 피하질 않아요. 마을 안에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친근한 동네 같은데 갑자기 미군들이 카멜백을 메고 행군하는 걸 보니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 전쟁참전21개국수도이정표

진욱 ▶ 작년에도 왔었기 때문에 위병소를 통과할 때도 특별한 생각은 없었는데, 이번에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은 것을 보면서 이 지역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단 생각이 들었어요. 매년 사고 없이 진행된 것도 다행이고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에 자부심도 있어요.

성범 ▶ 전 거꾸로 마을에 들어갈 때는 군인들이 통제해서 삼엄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마을에 들어와 보니 통일을 위한 프로젝트를 왜 이곳에서 하게 됐는지 알게 됐어요. 마을 주민들의 염원과 더불어 선배들이 설치해둔 조형물에서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선배들의 작품을 보며 후배들이 영감을 얻고 봉사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통일을 향한 에너지가 점점 더 쌓이고 커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유라 ▶ 지난 봄 DMZ 문화상품 기획 수업 때 해마루촌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70~80대로 연세들이 많으셨어요. 이번 봉사활동 때 다시 찾아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캔버스 액자나 엽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 전달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헤어질 때는 마음이 좀 찡했어요.



디자인으로 '행복한 통일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성범 ▶ 과거 조형물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평화의 카운트다운이나 고라니에도 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는 강한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엔 그런 힘이 있거든요. 통일 이후에도 디자인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한간 문화적, 경제적 격차가 크다고 들었는데 북한 내에서 공공디자인을 활발하게 펼쳐서 남북한 주민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화합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진욱 ▶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통일을 이뤄야 할 사람들도 저희 세대고, 설령 부정적인 결과가 오더라도 저희 힘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단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은 아이디어 하나로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통일 이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디자인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균 ▶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서 산업 발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북한에도 디자인 회사가 많아질 테니 그만큼 기회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정호 ▶ 통일이 된다면 현재 분단관리비용을 문화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으면 해요. 예전엔 군사력이 국가의 힘이었다면 지금은 문화가 힘이잖아요. 문화컨텐츠, 디자인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통일비용 마련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미니인터뷰 / 안병진 교수

해마루촌 봉사활동 6년, 문화 통해 통일에 접근할 것

“DMZ일원에 고라니가 많이 살고 남북한을 자유롭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5년간 조형물로 고라니 20마리를 만들었으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 옆에 평화통일을 위한 카운트다운 조형물을 설치했어요.”



평화의 상징 고라니로 마을 공공디자인



동서대 시각디자인과 안병진 교수는 부모님의 고향 장단 근처인 해마루촌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어르신들의 제안을 받고 이곳에서 디자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벽화 봉사를 하다 DMZ로 옮겨온 것이 6년 전 여름. 첫 해에는 회색빛 창고에 고라니를 그려 놓고 탁구대엔 마을 아이들을 채색해 갤러리처럼 꾸몄는데, 안 교수의 아내이자 사진작가인 장화영 씨가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촬영해 벽화 스케치를 도왔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누구 아이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 학생들 고생 많았지만 전공과 인생에 도움 될 것

올해 만든 평화의 카운트다운 54321은 3m 높이의 거대한 철판 조형물로 비용 면에서는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제작비용등이 만만치 않아 안 교수가 스폰 업체들의 디자인설계 업무를 도와주며 '몸으로 때웠다.' 이 작업 후원에 참여한 업체만도 5곳.

주어진 일주일간 조형물이 공장에서 도착할 때까지 학생들은 땅을 파고 콘크리트 작업을 했는데, 개막식이 가까워 오자 나중에는 밥도 굶고 일을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한 학기 내내 수업 듣는 것보다 이곳에서 보낸 일주일간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 흐뭇해진다. 이번 작업엔 특히 할아버지가 중공군으로 6.25전쟁 때 참전했다는 중국 유학생 2명도 함께해 마을 주민들과 상징적인 '화해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 평화의 카운트다운 조형물 제막식

● DMZ봉사활동 선후배간 전통으로 자리잡아

“사실 통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땅굴 견학을 다녀오거나 근대로 면회 오는 사람들이 통일조형물을 보며 ‘이런 마을에 평화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안병진 교수와 장화영 씨는 앞으로 좀 더 일을 확장해 볼 생각이다. 해마루촌에는 이미 공원과 거리가 조성됐기 때문에 인근 마을로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 중이다. 20여 명 가량의 학생들이 6년째 참여했으니 해마루촌 봉사활동 참가 학생만 백여 명이 넘는다. 이미 동서대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DMZ디자인봉사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디자인학도들이 통일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글/사진. 기자희, 사진제공. 포토그래퍼 장화영>

‘사춘기의 강’을 함께 건너는 어깨동무 멘토링



경기도 의왕시협의회
서성란 멘토 자문위원

중학교 3학년이던 훈이는 밤늦게까지 인터넷게임에 빠져있고 학업에 관심이 없던 아이였다. 탈북 여성인 어머니는 아이의 진로가 걱정됐지만 생계를 돌보느라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었다. 어깨동무하기 멘토인 서성란 자문위원은 지난해 훈이를 맡아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고 교우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멘토링했다. 그런데 최근 훈이에게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왔다. 서 자문위원은 그런 아이의 손을 무리하게 잡아끌기보다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며 깊고 험한 ‘사춘기의 강’을 함께 건너주고 있었다.

밤새 게임하던 훈이, 멘토링으로 성적 크게 향상돼

훈(가명, 18세, 고1)이는 탈북민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들어왔다. 부모님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느라 바빴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훈이는 방과 후 몇몇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인터넷 게임중독이 걱정될 정도로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다. 서성란 자문위원은 그 무렵 훈이 어머니를 알게 되면서 가정 사정에 대해 듣게 됐고,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을 통해 훈이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2013년 훈이네는 군포에서 의왕시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훈이는 매일매일 총 여섯 번이나 차를 갈아타면서 이전 학교로 통학하고 있었다. 전학 절차도 잘 모르고 전학하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했다. 중3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전학은 어렵다고 판단한 서 자문위원은 고등학교라도 집 근처 인문계로 진학시키고 싶었지만 성적이 따라와 주지 않았다. 이에 훈이의 성적을 올리고자 지인의 공부방 학원을 소개해주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과목 1:1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학습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개월 후 시험에서 훈이 성적은 평균 30점이 올랐고, 나중에는 무난하게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진보상, 노력상 등을 받는 등 선생님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으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훈이는 새로운 이름을 갖기도 했다. 본명에 쓰인 한자가 중국식 이름이어서 개명을 권장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인 훈이의 아빠 성씨도 법적으로 미등록된 상태였다. 서성란 멘토는 직접 법원에 가서 상담한 뒤 서류를 처리해주기도 했다.

엄마와 아빠에게 취업자리 소개, 남한사회 정착 도와

서성란 자문위원은 훈이 엄마, 아빠의 ‘남한사회적응 멘토’ 역할도 겸했다. 당시 훈이 아빠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허리가 자주 아팠고, 통증이 심한 날엔 직장을 나가지 않았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하는 외식업소를 운영했지만 손님이 없어 ‘공치는’ 날이 많았다. 서 자문위원은 먼저 아버지를 지인의 공장에 취직시켜 주고 일정한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훈이 엄마는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 복지관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얼마 안 가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취업 대신 당분간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혜택 중 하나로 직업훈련교육을 신청했지만 이미 교육비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더이상 무료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전에 잠시 다녔던 학원에서 계속 학비를 수급해왔던 것. 서 위원은 민주평통 법률자문위원을 찾아가 상담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당함을 알리는 등 적극 나서서 학원비를 다시 환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멘토링 방식도 달라져야

아빠는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고 엄마는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아들은 ‘모범생’이 된 훈이네. 동화책이라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8개월 뒤 훈이는 뒤늦게 사춘기를 앓았고 엄마는 함께 살게 된 중국인 시댁식구들과 갈등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산재 혜택은 받았지만 집에서 쉬고 계셨다.



“공부나 교우관계, 게임중독 문제 같은 건 어찌 보면 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데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춘기는 달라요. 훈이는 키가 자란만큼 생각도 자라고 있고, 부모 역시 아이의 정신적 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를 포기하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최근 집안에 불화가 생기다 보니 엄마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그만큼 훈이의 표정도 더 어두워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부분은 개입하기 어렵다 보니, 훈이가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담해올 때마다 들어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게 요즘 서 위원의 멘토링 방식이다.

“체험이나 캠프 보단 자주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서성란 자문위원과 같이 만난 훈이는 훗날 키에 멋진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훈이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선생님들이 칭찬하신다고 자랑을 했다.

“중학교 때 다녔던 그 공부방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역사가 어려웠는데 멘토 선생님(서성란 자문위원)이 책을 많이 권해주셔서서인지 이젠 역사도 잘해요.”

수학, 영어 성적은 괜찮은지 물었더니 “나쁘지 않죠”라며 환하게 웃는다. 옆에서 서 위원이 “애가 영특하다”고 거들었다. 훈이는 서 자문위원과 체험, 캠프 등에 다녀온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는 근처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확실히 훈이는 올봄에 비해 훨씬 성숙해 있었다.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는 게 꿈’이라던 아이가 이젠 애니메이션 성우를 하고 싶다고 꿈을 당당하게 말한다. 서성란 자문위원이 훈이의 꿈을 응원했다. “훈이의 꿈이 무엇이든 지금은 자신감과 적극성,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꿈을 향한 길은 얼마든지 열릴 겁니다.”

서성란 자문위원은 멘토링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심지어는 그런 문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민주평통의 많은 자문위원들이 네트워킹해서 움직여주면 탈북민정착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통일시대를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주역'이 되고 싶다고 하며, 우선은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 기자회견>

훈이 엄마 “아이의 적응이 큰 힘이 돼요”

“2년 전 민주평통 추석맞이 행사에서 서성란 자문위원님을 처음 뵈고, 의왕시로 이사 온 뒤 자문위원님이 계시는 교회로 찾아가면서 친해졌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시곤 했는데, 사실 가장 감사한 건 훈이를 멘토링 해주신 거예요. 남한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젠 게임도 잘 안하고 공부에 더 집중하게 돼서 좋아요. 가장 큰 소원은 우리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건데, 실은 아직 부모님이 북한에 계시다보니 추석 때만 되면 항상 생각나네요. 장녀라서 더욱 미안하죠. 이왕 남한에 왔으니 열심히 사는 게 속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보고 싶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역사학도 꿈꾸는 서울 상암고 학생들

올해 통일골든벨에 처음 출전한 서울 상암고등학교 학생들. TV 녹화 경험이 신기했고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어떤 걸 그룹이 공연을 할까' 내기를 했던 게 재밌었다던 아이들이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역사 지식이 풍부해지고 통일에 대해 보다 진지한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KBS본선대회에 진출한 학생들과 예선에선 안타깝게 탈락했지만 역사만큼은 자신 있다는 친구들의 통일골든벨 뒷이야기를 들었다.



'변란요' 문제에서 모두 탈락, 아쉬움이 한가득



얼마 전 개학한 상암고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화젯거리는 지난 여름방학 때 참가했던 KBS역사통일골든벨 이야기였다. 'TV에서 널 봤다', '너 하품하는 거 카메라에 잡혔다', '오울~ 투샷 잡혔네' 등등. 2학년 성광이와 승배, 1학년 영규는 이런 친구들의 관심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잘했더라면'하는 후회가 남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선생님들로부터 '잡학다식(?)하다'는 평가를 듣는 성광이와 승배는 수십 명을 일시에 탈락시켰던 29번 '변란요' 문제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단다. 역사적 사건 중에서 변, 란, 요 중 규모가 큰 순서로 나열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상암고 학생들은 전부 오답을 써내고 말았다. 1학년 영규도 "그다음 문제부터는 다 맞힐 수 있는 것만 출제돼 더 안타까웠다"며 선배들의 말을 거들었다.



▲ 이홍규



▼ 유화경



▲ 김영규



▼ 최성광



▲ 손승배

성광이는 본선에서 '2번까지만 맞추자'는 각오로 출전했다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실력파. 평소 뉴스나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 통일관련 뉴스가 자주 나와서 더 주의깊게 봐 왔다고. 게다가 한국사 말고 세계사도 많이 공부해온 덕분에 교내대회도, 예선전도 쉽게 통과했다. 성광이가 이처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초등학교 6학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에 놓인 위인전을 읽으면서부터다. 처음엔 무인들의 전기를 흥미 있게 읽었지만 각 시대들을 연결짓다 보니 전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대회 전날 공부한 건 안 나온다는 소문, 정말일까?



그런데 대회 전날, 전국의 역사 수재들이 모여 합숙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연히 본선대회에 대비해 역사공부를 했겠거니 싶었지만 뜻밖에도 '전날 공부한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는 징크스가 아이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아이들의 관심사는 '내일 어떤 걸 그룹의 공연을 보게 될까'에 집중됐다.

"작년엔 AOA와 케이윌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누가 나올까 나름 추론을 했죠. 특히 남학생들의 기대가 컸지만 뜻밖에도 걸 그룹은 안 나왔어요. 들리는 말로는 광복70주년이라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그랬다는데 정말인가요?"



성광이와 달리 승배는 숙소에서 '한국의 유산'이라는 자료가 있어 밤에 문화재에 관한 공부를 '속성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영규가 "공부한 내용 나왔어요?" 하고 묻자 승배는 "아니, 하나도 안 나왔어"라고 대답했고 "거봐"라며 모두들 웃었다. 재밌는 건 실컷 수다를 떨던 영규네 방 형들도 11시가 되자 결국 다 '얼공모드'에 돌입했다고.

TV 녹화방송에 참여한 것도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성광이는 아주 작게 나오긴 했지만 다섯 번 정도는 화면에 비쳤다고 말했고 승배는 화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카메라에 크게 잡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승배는 "지미집이나 헬리캠이 왔다 갔다 하고 카메라 1, 2호가 들어가는 촬영장에서의 경험 또한 신기했다"고 말했다.



예선 탈락했지만 내년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본선에 진출했던 학생들과 달리 '상암고에서 역사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2학년 화경이는 교내대회에서 1등을 했음에도 서울지역회의 예선예선 탈락했다. 화경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도서관에서 역사만화책을 읽다 보니 역사가 좋아졌고 점점 독서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다. 교내대회가 시험 직후에 있어서 '남들 쉴 때 공부하느라' 좀 힘들긴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 역사지식이 오래 남을 것 같단다. 내년엔 또 출전할 건지 묻는 질문에 "학교에서 보내준다면..."하고 말끝을 흐리더니 이내 "그런 기회는 후배들에게 양보해야죠"라며 의젓한 언니의 모습을 보여줬다.

홍규는 1학년으로 역시 서울지역회의 예선에서 세계사 문제를 맞히지 못해 안타깝게도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지난해 중학생퀴즈왕 본선대회에서 끝까지 실력을 겨룬 8인 중 한 명이자, 줄곧 1위를 유지하다 막판에 아깝게 역전을 당한 역사퀴즈의 강자다. '매우 매우 아쉬웠다고 말하는 홍규는 내년에도 또 출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현수 선생님은 통일골든벨을 올해 처음 알게 됐는데 교내대회와 예선, 본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 교내대회에 20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을 정도라고.

"서울 예선에 15명만 참가하는 줄 알았는데 30명씩 출전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출전자 대비 본선 진출률로 치면 우리 학교가 가장 높은 셈이죠. 학생들의 본선 진출은 학교로서도 영광이었지만 학생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우리민족이 하나였을 땐 언제나 강했잖아요!



이날 만난 아이들은 주로 역사학자 혹은 역사 교사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확실히 기성세대와는 달리, '무조건 해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특히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도 함께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한결같았다.

영규는 "통일 이후 건설업과 같이 호황을 맞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 같아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통일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적(敵)을 두기보단 통일을 하는 게 낫기 때문"이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냈다. 흥규는 "안보 차원에서도, 민족 통합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20년 정도가 지나면 독일처럼 잘살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광이는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의외로 남북한 간 달라진 점이 많은 걸 알고는 통일이 시급하다고 깨닫게 됐다.

"장난 아니구나 생각했죠. 통일이 늦어지면 나중에는 다른 나라를 합친 것처럼 이질감이 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나 고려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졌을 땐 항상 힘이 강했잖아요? 3.1운동 때도 다 같이 단결하니까 우리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고요. 독립운동가들이 하셨던 것처럼 당장의 득과 실을 따지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던 김현수 선생님은 이번 대회 출전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이 보다 성숙해진 것 같다고 했다.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 직접 역사를 가르칠 순 없었지만 기출문제나 문제집을 프린트해 나눠주면서도 자료에 편향된 역사의식이 있진 않은 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출전을 결정했다는 김현수 선생님은 "결과를 떠나 준비 자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내년에는 역사과 선생님이 지도와 인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해놓았다"며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믿음이 생겨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지원과 참여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

북한에 부는 외국어 열풍, 세계와 소통 가능성 넓혀

지성림(연합뉴스 기자, 김일성대 졸업)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4월 준공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에 친필로 보낸 문구다.
 “폐쇄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당국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찾은 해답이 ‘눈을 세계로 돌려라’ 즉 외국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이다.

90년대 중반까진 영어 러시아어 반반씩 교육

필자가 기억하기로 1999년경 김정일이 다가올 21세기를 주제로 간부들과 나눴다는 얘기가 대학생들에게 ‘방침’으로 전달된 적이 있다. 당시 김정일은 ‘21세기 인간형은 영어와, 컴퓨터, 자동차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량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던 북한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 같았지만, 어찌 됐든 김정일은 당시 세계화에 대해 고민했고, 이를 위해서는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되고, 이 여파로 북한 경제가 몰락하기 전까지 북한 영어 교육의 목적은 세계화와 연관이 없었다. 당시 북한은 학생들에게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한다’는 논리로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런 황당한 ‘중요성’ 때문에 당시 북한 학생들은 인민학교(지금의 소학교) 졸업반 때 알파벳이나 간단한 영어 단어를 배우면서 영어의 ‘맛’을 봤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인민학교 4학년 학급을 절반으로 나눠 영어와 노어(러시아어)의 기초를 가르쳤다. 물론 초등과정에서 러시아어 교육은 사회주의 소련이 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0년 이후 사라졌다.



▲ 폴란드대사 평양외국어대학 참관

북한 중등교육에서 영어는 중요한 '필수과목'

북한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 아직도 북한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중학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영어의 경우 매주 수업이 진행되는 등 중요한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에서 핵심적인 중등교육 시스템은 바로 각 도에 하나씩 있는 외국어학원(우리의 외교에 해당)이다. 평양외국어학원, 신의주외국어학원, 청진외국어학원 등 외국어 특목고에서는 영어와 함께 중국어, 일본어도 가르쳤다. 영어 교재의 수준과 내용은 일반 중학교와 차이가 많이 났다. 외국어학원 졸업생들은 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나 평양외국어대학, 사범대학 등에 진학을 할 수 있다.

외국어학원뿐 아니라 평양과 각 도에 하나씩 있는 과학영재학교인 제1중학교에서도 외국어교육을 강화한다. 역시 외국어 교재는 일반 중학교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 교사들은 이들 과학영재들에게 “외국 원서를 읽기 위해서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스파르타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실시했다. 매일 아침 등교시간이 되면 영어교사와 담임교사들이 학교 정문 앞에 지키고 서서 학생들에게 전날 배운 영

어 지문을 외우게 하고 통과한 학생만 들어가게 하는 모습은 평양제1중학교의 진풍경이었다. 1중학교 학생들은 졸업반인 6학년 때 2외국어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해 배우기도 한다.

지방 대도시까지 영어 사교육 확대 추세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교관이나 해외무역일꾼의 자녀, 또는 그런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주로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지, 일반 중학생은 물론이고 영재학교 학생들도 대학 진학과 성적을 위해 ‘억지로’ 외국어를 배웠을 뿐이었다. ‘해외에 나가지 못할 바에는 세계와 단절되다시피 한 북한에서 영어를 배워 어디에 쓰겠느냐’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북한 학생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영어 교육을 세계화와 연관시키면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김정일 정권 말기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면서 영어와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학교에서만 배우고 마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죽은 외국어’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외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특히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영어 과외'까지 등장했다. 평양에서 수학과 영어 과외를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평양의 평균 사교육비는 수학의 경우 20달러(1개월), 영어는 20~30달러(1개월) 정도라고 한다. 또한 평양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영어 사교육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북한 당국도 정책적으로 외국인을 활용한 영어 교육에 관심을 들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영어 교육을 위해 영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지난해 북한 영어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수법 교육을 했으며, 200여 명의 북한 대학생에게 스피킹(말하기)과 리스닝(듣기)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영국문화원은 2000년부터 원어민 강사를 북한 교육기관에 파견해 영어 교수법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북한은 영어권 외국인들이 북한의 중학교와 대학을 방문해 1일 영어강사로 나서는 관광 상품까지 개발하며 원어민을 통한 영어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외부세계와 소통하려는 주민들의 열망 키울 듯

북한에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평양외국어대학과 김일성대 외국어문학부다. 이곳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 전공자들이 있다. 이외 일반 대학과 일반 학과에서는 1외국어로 영어를, 2외국어로 주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친다. 외국어 강의는 보통 대학 1~2학년 과정에서 끝나며 그 이후부터는 전공 원서를 읽는 등 외국어를 활용해 전공 공부에 집중하는 식이다.



▲ 전자도서관

최근 북한에서 다른 외국어보다 특별히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컴퓨터 붐이 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평양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좀 산다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컴퓨터 용어가 영어로 되어있는 만큼 컴퓨터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영어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불고 있는 외국어 열풍은 북한이 경제개발구 설치를 비롯해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에 힘을 쏟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최근 북한에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열풍이 부는 것은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만큼 외부세계와 소통하려는 북한 주민의 열망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망을 북한 당국이 언제까지나 통제하고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빗장을 열고 국제사회로 나올 그날을 기대해본다.



북한서 온 영인이의 '파란만장 알바 적응기'

북한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예능계 대학교를 다니다가 온 영인 씨(가명, 강원도, 2008년 입국).
 엄마가 남한에 오자마자 취업을 하셔서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전혀 받지 못한 그녀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학원비와 용돈을 충당했다.
 피자집 계산원이나 미싱사를 비롯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영인 씨 이야기를 시작한다.

'양파튀김' 하면 쉬운데, 왜 '어니언링'이라고 쓰나요?



북한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어로 된
 메뉴 이름 외우기다. 피자 가게 계산원으로 첫 '알바'를
 시작한 영인 씨도 마찬가지였다. 손님들이 카운터로
 와서 계산해달라며 카드를 내밀 때마다 한동안 당혹
 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고르
 곤졸라 치즈 피자, 슈퍼 콤비네이션 피자, 베이컨 수
 프림 갈릭 피자,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등 메뉴가 낯설
 어 도통 외워지지 않았다.

"어니언 링 하나만 해도 그래요. 그냥 양파튀김이라고
 쓰면 되지 어니언 링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글로 쓰여 있다 보니 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토핑된 재료의 사진을 보고 메뉴를 구분해 내는 것. 감자는 포테이토, 새우는 슈
 프림, 얇은 돼지고기 훈제는 베이컨 등등 토핑을 보고 메뉴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하며 적응할 수 있었다고.

또 한 가지는 일을 분담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는 것이었다. 캐셔와 주방, 홀 서빙 등 아르바이트생마다 업무가 각각 나뉘어 있어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데도, 눈에 보이는 일마다 쫓아가서 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한동안 힘들었다고.

“북한에서 어릴 적부터 장사를 했어요. 감도 팔고 옷도 팔고 생선도 팔아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 해봤거든요. 계산대에서 서 있다 보면 홀에 빈 그릇이 쌓여있는 게 눈에 들어오고 저도 모르게 식탁을 치우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죠. ‘돈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면서 가끔 핀잔을 들곤 했어요.’”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영인 씨. 그런데 어느 날 무단결근을 하게 됐다. “엄마가 아프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정말 일하러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월급 바로 전날이었는데 그냥 말없이 하루를 쉬었어요. 무단결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였어요.”

영인 씨가 갑자기 나오지 않자 피자 가게 주인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개인 업무를 제쳐놓고 하루 종일 카운터를 봐야 했고,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출근한 영인 씨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움이 된 것보다는 손해를 끼친 게 더 많다는 이유였다. 영인 씨는 부당하다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빈손으로 가게를 나와야 했다.

“그땐 뭘 몰랐으니까요. 지금의 저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건 있어요. 절대 무단결근을 하지 말자, 몸이 아파 도저히 일하러 갈 상황이 아니면 친구에게 부탁해서 ‘대타’라도 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죠.”

무단결근은 좋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피자 가게 주인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영인 씨는 그 일로 상처가 컸지만 다행히 두 번째 아르바이트에서 ‘마음 따뜻한’ 사장님을 만나게 된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남한 친구들 바느질과 다림질을 못하거든요?

영인 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중 동대문 옷 공장에서 시급으로 미싱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다. 하지만 대학 수업이 들쭉날쭉 짜여 있어 공장에서 제시한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사장님은 수업이 없을 때 와서 일을 하면 되고, 시급이 아니라 완성한 옷의 개수에 따라서 알바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공장 문을 닫은 뒤에도 미싱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날 때마다 달려가서 3~4시간 열심히 옷을 만들었어요. 시간당 알바비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영인 씨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인근에서 이름난 미싱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녀도 자연스럽게 옷 만드는 일을 배울 수 있었다.

“남한에서는 재단사와 패턴사(옷 제작과정에서 치수를 재고 치수별로 옷본을 뜨는 사람)가 따로 있지만 북한에서는 미싱사가 둘 다 해요. 지금 북한은 어떤지 몰라도 10여 년 전쯤에는 거의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미싱을 잘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었어요.”

영인 씨 동네는 군대 주둔지역이었는데, 대개 군인들은 10년 복무기간 동안 군복만 계속 입기 때문에 1~2년마다 헤지고 색이 바라곤 해서 군복을 주로 수선했다.

“새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옷을 전부 뜯어낸 뒤 뒤로 뒤집어서 꿰매주면 새 군복처럼 보이거든요. 군인들은 대가로 쌀이나 고기, 수산물을 가져왔는데 어찌다가 쪼꼬렛(초콜릿), 작은 빠다(버터) 등을 가져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썼던 것은 손으로 돌려서 하는 수동방식의 미싱으로, 영인 씨는 남한에서 전기재봉틀을 처음 써봤다.

“전기재봉틀은 힘 조절을 잘 못하면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 속도감이 익숙해 질 때까지 손가락을 몇 번이나 찔렸는지 몰라요. 물론 작업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긴 하죠.”

전기다리미도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 헤매긴 마찬가지. 북한에서는 전기다리미가 거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석탄 위에 올려 달궈놓고 쓰곤 했다.

“누르는 게(버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엔 뭔가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스팀이 팍하고 터져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리미에서 스팀도 나오고 물도 나오니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실의 종류가 색깔별로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었다. 영인 씨는 한국을 ‘실의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에선 주로 흰색, 검정색, 빨간색 실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긴 실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났죠. 초록색 실 같은 건 북한에서 무척 귀하거든요. 귀한 색 실은 구할 수가 없으니 옷에서 뽑아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3가지 색 외에 북한에서 자주 쓰는 또 다른 색깔의 실이 있는지 물어보니 영인 씨는 국방색 실도 흔하다며 웃는다. 군복을 10년간 입어야 하는지라 어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그런데 영인 씨는 남한에 와서 바느질을 못하는 여자 아이들이 많아 놀랐다고 했다.

“대학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애들이 바느질을 해놓은 거 보니 촌촌하지가 못해요. 거의 3cm쯤 씩 기워놔서 입었더니 겨드랑이가 다 보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여자라면 당연히 바느질하고 매듭짓는 것, 다림질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선 엄마가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통해 책임감이 중요하단 걸 배웠죠

미싱 공장에서의 알바 경험은 영인 씨에게 이전 직장에서 얻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연고’ 역할을 했다. 미싱 공장 사장님은 수업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배려해준 것 외에도 남한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곤 했다.

“북한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공감을 해주고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면 차근 차근 설명해줬어요. 청약저축이나 보험도 들어야 한다며 돈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셨고요. 물론 그분이 보험설계사는 아니세요.(웃음)”

점심식사를 주문할 때도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도록 했고 국내외의 여행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인 씨가 약속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하고 많이 지각을 하게 됐다. 이전 직장에서 겪은 일 때문에 결근은 물론 절대 지각도 하지 않던 영인 씨였다.



“평평 울면서 공장에 갔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웃으면서 생활하다 보면 지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해줬어요.” 영인 씨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사장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올 거라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여비를 보태주시기도 했다고.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영인 씨는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고 했다.

“제가 남북한 대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외 프로그램에 자주 참가하고 있는데 후배 탈북 대학생들이 가끔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해놓고도 안 나오거나 늦는 경우를 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북한 사람들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해주죠.”

영인 씨도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으니 남한 사람들이 더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한 사람들도 각자 소중한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해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따라서 남한 사회의 시스템과 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글. 기자회견〉



제16차 남북관계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새로운 통일논의의 전망과 과제'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지난 9월 4(금)~5일(토) 전북 부안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새로운 통일논의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16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여 명의 통일·외교·안보·경제·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한의 제도 통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한반도 통일 논의 필요

올해 '제16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는 평소에 비해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더했다. 1세션에서는 김근식 교수(경남대)의 발제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세션에서는 박형중 박사(통일연구원)의 발제로 '남북간 제도 통합' 문제를 다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제로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제도 통합을 이뤄낼 것인지를 논의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법은 제도적 통합이고, 이는 강요가 아닌 협상의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 박찬봉 사무처장



▲ 김태현 국제정치학회 회장

통일 논의도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매우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제정치학회장은 "북한지뢰와 포격도발 기간 동안 남북간 군사적대치와 긴장이 고조되다가 8.25 남북합의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남북관계 제도화는 통일을 평화롭고 순조롭게 추진하는 것인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해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1·2세션 발제, 남북관계의 제도화 & 남북한 제도 통합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다룬 1세션에서 김근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안정적인 제도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과 방법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가다서다의 반복이었고, 합의와 불이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담보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포괄적 평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괄적 평화란 군사·정치적 평화와 함께 적대인식 및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마음의 평화를 포함한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평화는 지금 당장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평화의 첫 단계로 '중년부부론'을 제시했다. 즉 대화와 협력을 끝까지 시도해야 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아야 하며 관계를 파탄(이혼)내지 않고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남북공동의 합의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정치·군사적 의제 논의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경협과 교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진전시켜야 하며 친북과 반복의 극단적 대북인식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근식 교수(경남대)



▲ 박형중 박사(통일연구원)

2세션 '남북한의 제도 통합' 발제를 맡은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관점을 인용해 남북한 제도 통합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제도인데 성공하는 경제제도의 핵심요소 두 가지로 '거래비용 감소'와 '재산권보호'를 들었다. 그리고 이들 요소가 잘 지켜지는 제도를 '포용적 경제제도'로, 북한과 같이 소수가 다수로부터 자원을 추출하도록 돼 있는 경우를 '추출적 경제제도'로 정의했다.

박형중 박사는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이 포용적 경제제도를 북한에 정착시켜야 하지만 제도는 영속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포용제도를 유지하는데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제도 통합 과정을 2단계로 나눠서 설명했다. 즉 1단계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지만, 북한이 한국식 제도 통합을 수용할 만큼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분리 관할하고, 2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제도를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낙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포격도발 및 8.25합의 전후 북한 정세

이어진 토론에서는 북한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종호 박사(한국수출입은행)는 최근 북한의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을 되짚어봤을 때 인풋(Input)보다 아웃풋(Output)이 증가되고 있어 근본적 생산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경제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갑식 박사(통일연구원)도 현 북한 체제는 안정적이지 않으며 북한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댈 곳은 남한밖에 없는 상황에서 8.25합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 김종호 박사(한국수출입은행)

▼ 김갑식 박사(통일연구원)



▲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

▼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나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박종철 박사는 북한이 최소한의 경제기반을 갖고 있어 당장 붕괴될 상황은 아니라고 했고 김용현 교수(동국대)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 경제생활이나 가족의 이해관계만 유지된다면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적 요소가 확산돼도 체제의 붕괴나 체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북한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한간 제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기동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간 합의는 완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제도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약속 위반에 대해 상호 규제할 수 있는 약속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제노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국민적 여론형성을 위해 남북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시점 부분부터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이기동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조윤영 교수(중앙대)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는 “북한이 제도화를 족쇄로 느끼고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북한 스스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는 “경제교류에 있어 조건을 걸지 말고 국제적 스탠다드 하에, 박근혜 정부만의 색깔 있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남북간의 경제협력 원칙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 조봉현 박사(IBK기업은행)



▲ 이석 박사(한국개발연구원)

특히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는 지난 8월 있었던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과 제도화 논의를 연결 짓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김용호 교수(인하대)는 “남북 관계 제도화에서 가장 시급한 건 군사분쟁 해결 방식의 제도화이며, 우리 측도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주석 박사(국방연구원)는 “언제든지 8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평화 제도화를 위한 남북군사당국자간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현 박사(세종연구소)는 “기능적 협력이 군사안보협력에 도움이 되므로 경험이나 이산가족 등은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정치군사적 논의를 회피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용호 교수(인하대)



▲ 서주석 박사(국방연구원)



▲ 마상운 교수(카톨릭대)



▲ 안제노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이상현 박사(세종연구소)

마상운 교수(카톨릭대학교)는 “남북한은 스스로의 생존추구가 남에게는 위협이 되고 악화되고 심화되는 나선형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으므로 제도화를 논의할 때 실제 정권과 주민들, 대안세력들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교수(중앙대)는 “남북한 구성원들이 전쟁을 막기 위한 의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한 간 제도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돼

제도 통합 논의는 이상적인 전망과 현실적인 전망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오경섭 박사(통일연구원)는 박형중 박사가 밝힌 2단계 제도통합에 대해 “제도 세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건 현실성이 없으며, 초기에 남한의 정치경제 제도를 북한에 확장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종철 박사는 “남북간 제도 통합은 독일의 경우처럼 유예기간과 여러 이식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뿐 아니라 우리도 변화를 수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는 “제도가 안정성 지속성을 가지려면 법에 근거해야 하며 우리의 법제가 북한에 확산 적용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오경섭 박사(통일연구원)



▼ 제성호 교수(중앙대)



▲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



▼ 송영훈 교수(강원대)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는 “제도통합을 위해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수준을 갖고있는 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송영훈 교수(강원대)는 “왜 남북 제도를 통합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제도 통합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총론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5시간여에 걸쳐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통일과 국제관계,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의 최근 동향과 이룬,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진단하고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담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기도 해서 일부러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을 몇몇 모셨어요. 오늘 아주 참신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중년부부론'이 화두에 올랐었죠.

그러나 사실 부부의 경우 말로는 '일심동체'지만 동체가 될 순 없는데 중년부부론은 두 개의 국가를 전제로, 통일은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한 나라는 부부가 아닙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세계 모든 나라의 통일 역사를 보면 국제적 요소들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통일에 있어 국제정치학회가 해야 할 일이 앞으로도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 김태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제16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참석 전문가>

1세션	2세션
김갑식(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수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호(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수(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안제노(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마상윤(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염돈재(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섭(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지원(평택대학교 외교안보전공 교수)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성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대진(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영기(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운영(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 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진희관(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이수영(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조봉현(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뉴스

제17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



제 17기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이 지난 9월 3일 임명장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다. 김철수 단장(에이치플러스 양지 종합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31명의 의료봉사단은 이날 향후 의료봉사단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17기 봉사단 첫 활동으로 오는 16일 서울양지병원에서 금강학교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지역실행위원 13명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며, 건강보험공단과 치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장비 탑재 차량 사용 MOU를 체결해 의료지원 차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은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체계적·종합적인 의료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6기에는 탈북청소년 및 학교관계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참가자 모두에게 비상용 의료키트, 영양제, 안경 등 의약품품을 제공했다.



대구 달서구협의회 광복70주년기념 '사'문화콘서트 후원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엽)는 8월 14일 본리어린이공원에서 개최된 대구 달서구의 광복70주년기념 나라사랑 '사'문화콘서트를 후원했다. 달서구협의회는 이날 콘서트 현장에서 민주평통 홍보부스를 마련, 간단한 통일퀴즈를 출제해 이를 맞추는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줬으며, 민주평통 웹진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거나 페이스북 민주평통의 친구가 된 시민들에게도 태극기를 선물했다. 이와 함께 '사'문화콘서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는 '통일바람부채'를 배부하기도 했다.

베트남협의회 미안마지회, 수해지역 구호물품 전달



베트남협의회 미안마지회(회장 유명식, 지회장 전성호)는 8월 11일 미안마 수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했다. 미안마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계속된 폭우로 13개주 중 11개주가 물에 잠겼고 수많은 가축과 가옥이 침수되거나 무너졌다. 이에 미안마 정부는 친주를 포함해 총 4개 주를 '국가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했다. 미안마지회는 수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 두 대 트럭분의 쌀, 의약품, 기름, 생수, 의류, 세제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제17기 출범회의 개최



민주평통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제17기 출범회의가 8월 22~27일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각각 개최됐다. 먼저 블라디보스톡협의회(회장 이경중) 출범회의는 22일 통일기원 문화공연과 통일간담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찬봉 사무처장은 강연을 통해 극동러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을 위해 재외국민과 고려인들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4일에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벨라루스 지역 자문위원과 한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협의회(회장 박형택) 출범식이 개최됐으며 27일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몽골 등을 아우르는 중앙아시아협의회(회장 이재원) 출범회의가 열렸다. 중앙아시아협의회를 끝으로 제17기 해외지역 출범회의가 모두 치러졌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준비를 갖췄다.



통일준비 한마음 봉화대축제

민주평통의 69개 지역협의회는 8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준비 한마음 봉화대축제'에서 '전국 봉화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파주 임진각 등 70개 지역에서 열린 봉화 점화식은 제주도 수근연대 봉화대를 시작으로 남산 봉화대까지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봉화 점화식에 앞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대북 선언문을 낭독했다.



▲ 전북 부안군협의회(월고리 봉수대)
 ▲ 강원 동해시협의회(동해어달산 봉수대)



충남 아산시협의회(연암산 봉수대) ▲
 부산 시하구협의회(아미산 응봉봉수대)▶



▲ 전남 해남군협의회(해남땅끝전망대내 갈두산봉수대)



▲ 부산 서구협의회(천마산 석성봉수대)



▲ 경남 사천시협의회(각산봉화대)



▲ 경북 의성군협의회(구봉산 문소루)



▼ 경남 진주시협의회(망진산 봉수대)



▲ 경기 파주시협의회(임진각 평화의 종 광장)

◀ 경북 예천군협의회(회룡포 비룡산봉수대)

▼ 경기 화성시협의회(서봉산)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황령산 봉수대)

▼ 강원 강릉시협의회(소동산 봉수대)



▲ 전남 여수시협의회(묘도 봉수대)



▲ 경남 통영시협의회(미륵산 정상)

◀ 충북 충주시협의회(주정산 봉수대)



▲ 전남 광양시협의회(구봉산 봉수대)



강원 양구군협의회(사명산) ▲
전남 무안군협의회(송공산) ▶



▲ 전남 진도군협의회(침찰산 봉수대)



▲ 부산 연제구협의회(구봉산 봉수대)



▲ 전남 장흥군협의회(천관산 봉수대)



◀ 전북 진안군협의회(성외산)
▼ 경남 창원시협의회
(봉화산 봉수대)



▲ 서울 관악구협의회(남산공원)



전남 완도군협의회(동망산) ▶



▲ 전남 고흥군협의회(장기산 봉수대)



▲ 충남 논산시협의회(옥녀봉 봉수대)



▲ 인천 계양구협의회(봉천산)

경남 고성군협의회(좌이산 봉수대) ▶

▼ 경북 청도군협의회(종도산 남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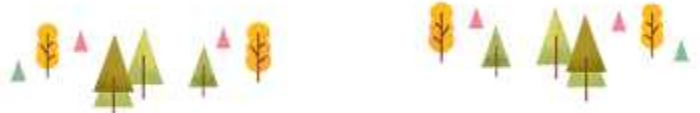


▲ 전남 신안군협의회(송공산 봉화대)



▲ 대구 수성구협의회(법어산 봉수대)

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 강원 정선군협의회



▲ 경기 양평군협의회

광복절인 8월 15일, 전국 각 지역협의회는 다양한 행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강원 정선군협의회(회장 심응중)는 정선군 하이원 마운틴 잔디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광복70주년 분단70년 통일준비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으며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김수한)는 갈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6.25 전쟁 1129일, 양평의병' 책자를 무료로 배부했다.



◀ 경남 김해시협의회

▼ 부산 동구협의회



경남 김해시협의회(회장 안병석)는 광복절 아침 김해운동장에서 김해시민들과 함께 '숲속 둘레길 걷기대회'를 개최했으며,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지)는 부산동구청과 '부산역 광장으로 모이재' 행사에 참석했다.



◀ 충남 예산군협의회

▼ 경남 하동군협의회



경남 하동군협의회(회장 문수환)는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하동문화 예술회관 광장에서 관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광복70주년 태극기 달기 동참 운동'을 개최했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도 12일 '태극기 달기 운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강원 영월군협의회(회장 김유영)은 16일 '나라사랑 국기사랑' 연합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전달하고 강의를 들으며 나라사랑과 통일 의지를 다졌다.



▲ 강원 영월군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대전 동구협의회



▲ 대구 서구협의회



▲ 충남 보령시협의회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8월 22일 탈북민가정 어린이, 또래친구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견학하고 물놀이 체험을 하는 '어깨동무하기 여름추억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대구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도 이날 어깨동무멘토랑하기 멘토-멘티와 함께 '사랑의 뽕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머드포도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팜파티'를 열었다.



◀ 대구 북구협의회

▲ 충북 지역회의

충북 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30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31일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이광우)는 대행기관 및 경찰서 관계자,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갖고 '전통 장보기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물'을 칠곡시장에서 배부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대전 지역회의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대전지역회의(부의장 강영자)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2일간 전북 여수로 통일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광복70주년 대학생 통일공감대회 워크숍'을 다녀왔으며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20일 울릉도에서 '소통과 공감이 있는 대학생 통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북 영주시협의회

▼ 전남 장성군협의회





▲ 전남 목포시협의회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정주현)는 8월 5일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임진각일대에서 '청소년 통일기행 체험교육'을 개최했고,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17~18일 계룡대, DMZ로 '청소년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으며,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정하모)는 19일 단성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2015년 제1차 청소년 통일 안보현장 견학 사업'을 개최, 전쟁기념관과 강화도 등지를 견학했다.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송하)는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파주 포병제1사단을 방문,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 경남 함양군협의회



▲ 대전 중구협의회



▼ 경남 남해군협의회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는 22일 함양군 보육원 청소년들과 봉사자, 교사 등과 함께 안보현장 체험을 개최했으며,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27~28일 1박2일 동안 대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복70주년기념-청소년 통일교육 및 나라사랑 역사현장 체험'을 가졌다.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28일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거제포로수용소 청소년 안보체험행사'를 열었다.



▲ 경기 구리시협의회



▼ 충북 괴산군협의회



▼ 충북 옥천군협의회

경기 구리시협의회(회장 신영출)는 14일 수택고등학교에서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2회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박용호)는 21일 괴산고등학교 학생들과 '2015 제10회 통일 골든벨대회'를 열었다.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는 27일 옥천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시간을 가졌다.

통일문화 확산



경북 봉화군협의회(회장 김희문)는 8일 제17회 봉화은어축제 현장에서 '민주평통의 날' 행사를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퀴즈 대회를 열었으며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18일 판문점 및 제3땅굴 등지로 강북구청 직원들과 함께 안보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경남 지역회의(부의장 최충경)는 27일 경남통일교육센터 위원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 경북 봉화군협의회



서울 강북구협의회 ▶



경남 지역회의 ▶

지역 봉사활동



▼ 부산 사상구협의회



▲ 강원 화천군협의회



▲ 대구 달성군협의회



강원 화천군협의회(회장 주종화)는 8월 5일 '2015 쪽배축제'장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13일 비슬산 대견사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 후 차량 부착용 태극기를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21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밥퍼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 경북 포항시협의회



▲ 대구 남구협의회

▼ 충남 공주시협의회





▲ 광주 광산구협의회

경기 여주시협의회 ▶

한편 2015년 을지훈련 기간인 8월 17~20일 전국 지역협의회에서는 각 대행기관의 을지훈련 연습상황보고를 받은 후 훈련에 임하고 있는 민관군경의 노고를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8월 17일에는 경북 포항시협의회(회장 김정치)와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 광주 광산구협의회(회장 김승언),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헌)가 각각 을지훈련장을 찾았으며, 18일에는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와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이계명),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최복수),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생낙헌)가 훈련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 부천시협의회 ▶

▼ 강원 횡성군협의회



▲ 경북 구미시협의회

◀ 서울 광진구협의회

▲ 서울 구로구협의회



▲ 경기 포천시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 경기 시흥시협의회



해외 지역 통일활동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8월 15일 다운타운의 유니온 광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축제장 내에 홍보 부스를 마련, 한반도 평화통일과 민주평통지역협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인 및 주류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지역회의 이창호 부의장은 광저우한국학교 신축기금 모금에 30만 위안(약 5,500만 원)을 쾌척했다. 지난 7월 20일 광저우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 부의장은 광저우한국학교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금을 전달했다. 광저우한국학교는 올 3월 한국 교육부로부터 운영승인을 받았으니 임대 계약만료로 내년 8월까지의 신축 이전을 해야 한다.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는 8월 7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제17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자문위원들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이튿날인 8일에는 토론토 지역 전체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토론토협의회 출범식에는 강정식 총영사가 참석했으며 스티븐 하퍼 총리와 캐서린 윈 온주 수상, 연아 마틴 상원의원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8월 5일 제17기출범식을 원담 글렌뷰스 스위트에서 열었다. 출범식에 참여한 환경대 수석부의장은 강연에서 "통일은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라며 "17기 자문위원들이 해외동포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외교대사로서 민족통일과 동북아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트남협의회(회장 유명식)는 7월 25일 제17기출범식을 호치민시에서 개최했다. 베트남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동포사회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럼과 워크샵, 강연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재외동포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며, 한류 문화행사를 보급해 한-베 우호교류에도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모진 풍파 속 오래 묵은 상처는 기어이 흉터자국을 남긴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흔적과 마주할 때면 어쩐지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 상처가 남긴 아픔과 고된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군산을 여행하다 보면 문득문득 불편한 기분이 들곤 한다. 분명 상처는 아물어 흉터로 남았건만, 울컥 코끝이 시리고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진다. 그럼에도 100여 년의 시간이 덩뎅하게 고여 있는 도심을 거닐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기엔 살아있는 우리가 과거에 진 빛이 너무 많기에 그리고 그 과거를 지나 오늘과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기에 가을햇살아래 조금 불편한 여행을 시작했다.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낯선 '군산항'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라 해서 당연하게 너른 갯벌과 깊은 바다가 어우러진 서해의 풍광을 상상하며 군산 내항부터 찾았다. 하지만, 수심이 낮아 더이상 큰 배가 드나들지 못하는 항구에서 펼떡거리는 생물도 분주한 어부들의 발걸음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목조건물들만이 한가한 부듯가를 지키고 있다. 어림짐작하기에도 몇십 년은 한 자리를 지켰을 법한 오래된 건축물들이지만, 낯설게만 느껴지는 까닭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산은 곡창지대인 호남과 충청지역이 인접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쌀 수탈 창구로 이용됐다. 덕분에 창고마다 쌀이 넘쳐나고, 매일 일본으로 식량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로 항구는 북새통을 이뤘지만, 정작 이 땅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우리네 아픈 역사의 흔적이 도심 곳곳에 남아있다. 도무지 낯설기만 한 부두 앞 건축물들 역시 그 일부다.



▲군산항



아프지만, 마주 봐야할 과거의 흔적 '근대문화역사거리'

요즘은 '근대문화역사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리를 따라 당시의 관공서와 은행, 회사들이 사용했던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역, 한국은행과 함께 국내 3대 서양 고전주의 건축물로 손꼽히는 (구)군산세관은 독일인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건축자재를 수입해 완공된 생선 비늘을 닮은 동판 지붕과 뾰족한 첨탑이 인상적인 건물이다. 낮에는 세관 사무실로 밤에는 연회장으로 사용됐었다는 내부에는 당시 군산항의 모습을 짐작게 해주는 흑백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구)군산세관 바로 옆으로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군산의 해양물류전시관과, 어린이체험관, 특별전시관, 근대생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근대생활관은 1930년대 군산항과 상점, 기차역 등을 고스란히 재현해, 일제치하에서도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을 만날 수 있다.



▲국내 3대 서양 고전주의 건축물 '군산세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우리 땅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 '(구)히로쓰가옥', '동국사'

당시 경제활동의 흔적이 부둣가 주변에 남아있다면 생활의 흔적은 원도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적산가옥은 (구)히로쓰 가옥이다. 적산가옥이란 '자기 나라의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을 뜻하는데 주로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건축물을 지칭한다. 일제강점기에 대규모 포목상을 했던 히로쓰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으로 대나무를 구부려 만든 둥근 창문 등이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하지만, 감탄도 잠깐, 한 집에 대문이 다섯 개나 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다는 가옥을 바라보자면, 이 집을 짓기까지 흘렸을 우리 민족의 눈물이 절로 생각나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 '히로쓰가옥'



▲동국사 대웅전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 '동국사'를 찾는다. 1913년 일본인 승려에 의해 세워진 동국사는 대웅전과 승려들이 거쳐하는 요사채가 실내 복도로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사실 동국사는 한국의 순수불교를 일본화하기 위해 지어진 사찰이다. 나라를 빼앗고,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그것으로 모자라 종교마저 식민지화 하려 했던 일본의 치밀했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됐지만, 당시 일본의 강제침탈에 도움을 줬던 일본 불교계는 깊은 참회와 사과의 뜻을 담아 긴 장문의 글을 비석에 새긴 뒤 동국사 들 앞에 세웠다. '참사문비'가 그것이다. 그 몇 글자로 감히 위로 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래도 구구절절한 사죄의 말 덕분에 잠시 울분을 삭인다.



옛 흔적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군산 하면 떠오르는 몇 개의 단어 중 군산의 풍광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바로 '항수'일 것이다. 옛 과거에 대한 흔적은 곧장 그리움으로 물든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간절해지는 그 시절의 풍경들. 국내에서도 손꼽힌다는 빵집의 야채빵을 입에 물고, 영화 속에 등장했던 오래된 사진관과 좁은 집이 웅기종기 붙어있는 철길마을을 걷다 보면 어느새 추억에 빠져든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사진관을 재현해낸 초원사진관과 경암동 철길마을은 사진 명소로 더 유명한 곳이다. 특히 철길마을은 신문용지 제조업체의 원료를 나르기 위해 놓인 좁은 철길을 사이로 두고 코앞으로 판잣집들 자리하고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어느덧 녹슬기 시작한 철로 위에 서서 말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면, 잊고 살았던 어느 가을날의 추억도 떠오른다. 추억에 젖기에도 사진을 촬영하기에도 좋은 장소지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지역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



▲초원사진관(영화 속 사진관 재현)



▲경암동 철길마을



부디 내일은 아프지 않기를 ‘금강하굿둑’

오랜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몸도 마음도 무거워진다. 잊지 말아야 할 상처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모처럼 여행을 우울한 기분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법. 부랴부랴 금강하굿둑으로 향했다. 이 가을이 좀 더 깊어진다면 철새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철새를 못 본다 하여 서운할 것은 없다. 탁 트인 금강의 넉넉함만으로 부러 발길을 한 보람은 톡톡히 보상받는다. 급할 것 없이 잔잔히 흐르는 물길을 바라보며, 흘러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생각한다. 어제의 상처가 쓰리고 아프다면 내일의 어제가 될 오늘은 더 가치 있게 보내리라. 다짐도 잊지 않는다.



▲금강하구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

최고의 록음악 축제, 통일한국의 '독도 록 페스티벌'

이택중

전 세계 록 음악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고의 음악축제 '독도 록페스티벌'이 펼쳐질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입니다.



자~꾸 지들 땅이라고 우겼던 일본 우~씨!!
하지만 평화통일 이후 통일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독도 록 페스티벌이 전 세계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록그룹들이 출연만 하게 해달라고
줄을 서서 곤란할 정도죠. 올해는 봉 조비와 폴 맥갈으니가 서로
공연을 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여 결국 제비뽑기로 공연 순서를
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죠~.



아니 그런데 까스명수씨는
전자음악 마니아 아닙니까?
록페스티벌은 어쩐 일이시죠?

무슨 소리!! 제가 까까까~ 까까
까까까가가아아아아!!만 좋아하
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음악의
박애주의자야아아!!



아 진짜?
공짜라서 온 건 아니고??

공짜?? 우~씨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져!!



뉴스 좀 봐요! 독도 록페스티벌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나서, 공연은 물론
먹고 자고 마시는 것까지 모두 공짜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아 답답해!!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평안도의 대표적인 음식인 순안불고기는 남한의 일반 불고기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 순안지역은 농업을 위해 소 등의 가축을 많이 사육기 때문에 소불고기가 유명해졌으며, 추위가 강한 지형 탓에 야채가 귀해 고기위주로 불고기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요리재료

소등심 300g

양념장 : 간장 3큰술, 배즙 6큰술, 설탕 1큰술, 다진파 한큰술, 다진마늘 반큰술, 참기름 한큰술, 후춧가루 약간

초간장 : 간장 2큰술, 다진파 반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식초 한큰술, 깨소금 약간



요리방법



1 소등심은 고기망치로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고 잔 칼집을 넣는다.



2 분량의 간장에 배즙,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3 손질한 고기에 양념장을 넣고 30분간 재워둔다.



4 분량의 양념을 섞어서 초간장을 만든다.



5 달궈진 팬에 고기를 올려 앞뒤로 구워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6 구워진 고기는 그릇에 보기 좋게 담고 초간장을 곁들여 상에 낸다.

▶ 요리연구가_ 나유신



북한 주민들의 꿈의 음식, 소고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소는 농업생산을 책임지는 생산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다고 한다. 소는 쌀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므로 소를 도살할 경우 식량생산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돼지고기와 토끼고기, 닭·오리고기 등은 가정형편에 따라 먹을 수 있지만,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북한주민들이 많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던 60년대 명절이나 국가기념일 등에 소를 잡아서 일부 나눠주기도 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포항

글_ 자스민

호미곶 / 포항운하크루즈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과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포항을 북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네요. ^^ 올해 초 KTX가 개통해서 경북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포항까지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 졌어요. 우선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미곶을 들려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호미곶! 푸른 바다와 황홀하기까지 한 일출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주변에는 등대 박물관과, 호랑이상, 해안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시장도 추천할 만합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한 포항이니만큼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죠. 또한 구룡포 근대 문화 역사 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100여 년 전의 일본식 가옥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다양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운하크루즈와 포항제철소 견학을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포항의 경치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포항제철소의 웅장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들과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포항을 북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네요. ^^

강릉

오죽헌 / 커피거리

글_ 쭉최

통일이 된다면 북한친구들과 함께 제 고향 강릉을 가고 싶네요,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선생님이 계신 오죽헌을 돌고, 허균생가를
 구경시켜준 후 같이 초당순두부를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경포에서 멋드러지게
 수영을 한 후~ 커피거리에서 한국의 커피를 맛보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대관령으로 올라가 양떼목장을 구경시켜준 후 강릉으로
 내려와 맛있는 감자옹심이를 사주겠습니다.
 또 통일이 된다면 제가 북한으로 가고싶은 곳은
 바로 개성(!)인데요~ 개성공단에서 남북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싶네요. ^^



제주도

한라산 / 열대우림

글_ 페르난도



만약 나이가 있으신 어른이시라면 꼭 대한민국의 최고 관광지인
 제주도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선정된 제주도가
 같은 한 나라에 있다는 것조차 신기할 테니까요. 열대우림도 보여주고
 싶고 멋진 경치, 바다, 그리고 한라산까지 북한에서 느낄 수 없었던
 모습들을 마음껏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면
 관광지도 좋지만 일단, 꼭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고 싶네요.
 몸이 공중에 뜬 느낌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제가 북한에 간다면 가보고 싶은 곳은 신의주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고향땅을 밟아보는 것이었는데
 이젠 이를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대신 가보고 싶네요.

인천

차이나타운 / 월미도

글_ 대한민국 사랑해요

북한에서 친구가 온다면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명소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원조 자장면으로 유명한 차이나타운에
 가서 먹고 북한에도 자장면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
 그리고 바로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 안가서 월미도가 있어요.
 월미도에서 놀이기구 타고 놀다가 유람선으로 영종도에 가서
 회도 먹을 거예요. 또 바로 그곳에서 버스를 타면 을왕리
 해수욕장을 갈 수 있으니깐 거기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
 다시 집에 오는 길에 월미도에 멋진 카페에 들러서 지는
 노을을 배경삼아 맛있는 커피도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다짐도 하면서요. ^^



대전

으능정이거리 / 성심당

글_ 아몬드



저는 북한친구들에게 제가 사는 곳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곳을 여행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계속 살아온 곳을 소개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싶은 맘이 더 큼니다. ^^
제가 사는 곳은 대전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으능정이거리에서 스카이라드도 구경하고 미술랭가이드에 선정된 성심당에서 맛있는 빵도 먹고 요즘 너무 잘 꾸며진 대전동물원에도 같이 놀러가고 싶습니다. 나중엔 반대로 북한친구들이 살았던 곳을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심표, 느낌표! | 보름달에게 통일소원 말해봐

보름달에게 통일소원 말해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보름달을 보며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어요~~

응모기간 2015. 09.14 ~ 2015.10.03

응모방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2만원

당첨자발표 10월 셋째주

<주의사항>

- 심사는 내부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북한의 추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북한의 추석에 대해 설명하는
아래글의 괄호 안에 있는 퀴즈의 정답을
차례대로 작성해주세요~^^

북한의 최대명절은 (①추석 / ②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다. 남한에서는 추석을 중심으로 약 3일간의 연휴를 즐기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추석 당일 하루만 쉰다.

추석하면 대표적인 음식으로 송편이 떠오르는데 (①북한 역시 송편이 있다 / ②북한에서는 송편이 따로없다). 아주 잘 차린 추석상이라 해도 한두 그릇의 쌀밥과 떡, 돼지고기 한 근, 서너 알의 사과와 계란, 두부, 콩나물 정도가 전부. 이것을 통해서도 넉넉하지 않은 북한의 생활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응 모 기 간 2015. 09.14 ~ 2015.10.03

응 모 방 법 하단 비밀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당 처 자 수 20명 **시 상 내 역**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당첨자발표 10월 셋째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찰칵, 통일공감'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6491@naver.com	조*표
2	**91126@naver.com	김*수
3	**njeong6473@hanmail.net	최*정
4	**esukangel@hanmail.net	한*서
5	**09@nuacmail.go.kr	임*숙
6	**ollove728@lycos.co.kr	조*지
7	**n900@naver.com	곽*나
8	**adzone@nate.com	이*관
9	**nmi999@hanmail.net	송*미
10	**dlfn1122@nate.com	이*종
11	**ksy@hanmail.net	권*윤
12	**65861312@naver.com	김*훈
13	**yeongk@gojin.com	가*미
14	**terarchy@naver.com	김*훈
15	**oljae92@naver.com	설*승
16	**wpo@paran.com	정*운
17	**wlek dus@hanmail.net	강*지

이벤트 당첨자

18	**leilantiguedades@Gmail.com	김*휘
19	**jbrj1@naver.com	심*희
20	**kim1950@hanmail.net	김*철



'설문조사'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1	**lfare-me@hanmail.net
2	**aalekd1@hanmail.net
3	**0kchoony@hanmil.net
4	**un060@hanmail.net
5	**nericl@hanmail.net
6	**r328@daum.net
7	**s011011@naver.com
8	**nn5@naver.com
9	**sqhcjswo@naver.com
10	**julianne@naver.com
11	**oaandnero@naver.com
12	**mi77829@naver.com
13	**srud1200@naver.com
14	**eedom0330@naver.com
15	**ydreama33@gmail.com
16	**n900@naver.com
17	**mbomme@hanmail.net
18	**stj0103@naver.com
19	**foodstyle@naver.com
20	**hlove1990@naver.com
21	**mjeong95@naver.com

22	**kim10007@nate.com
23	**rrr2@naver.com
24	**QC100489@naver.com
25	**192576292@naver.com
26	**hak0715@nate.com
27	**ry1210@naver.com
28	**65861312@naver.com
29	**ongjaeone@hanmail.net
30	**n7297@naver.com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